

1996년 세계 경제 및 우리의 수출 전망

李 吭 九*

금년의 세계 경제는 예측불허의 변화를 보여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경제 전망 예측기관들은 금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는 90년대 들어서 시작된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예상보다 부진한 양상을 보이며 향후 전망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 가을 국제통화기금(IMF)은 1995년 선진 7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이 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금년 봄 IMF는 그동안의 경기침체국면이 끝났다고 발표하며 선진 7개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을 3%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률에 대해서도 보다 밝은 전망을 내어놓았다. 그러나 IMF는 달러화 약세와 일본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금년 여름의 경제예측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2.4%로 하향조정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5개 회원국의 금년 경제성장 전망을 3.0%에서 2.7%로 하향조정하여 IMF와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 전망이 혼미를 거듭

해 온 데는 예상을 뛰어넘는 달러화의 등락과 유럽 단일통화의 향방이 불투명해짐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혼란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 소득,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경제의 오랜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부각된 점도 경제예측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는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 고령층에 대한 수혜 축소, 선·후진국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후진국들의 대응능력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일부 선진국과 아시아 개도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고 중앙은행과 재무관료들의 숙원인 저물가속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소득격차의 심화와 불균형적인 고용구조 및 경쟁의 심화에 따라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금년 상반기중 약세를 보였던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반전되고 주요 선진국의 금리인하조치가 취해지는 등 국제 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되찾아 가자 세계 경제의 향후 전망은 장미빛으로 물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금년에 2.7%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3.3%로 성장

* 産業研究院 北美洲研究室 責任研究員

률이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경기는 상반기 중 연착륙하였으나 경제성장세가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의 경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교역량도 증가하고 있다. 내년의 세계 경제 역시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견실한 동반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어 금년에 1천억달러를 넘어선 우리의 수출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내년도 세계 경제의 흐름과 우리의 수출 전망에 대해 살펴본 후 타이어산업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세계 경제 전망

(1) 금년도 경제 평가

지난해 3.6%의 성장을 기록하였던 세계 경제는 금년 하반기 들어서 회복세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상반기의 성장 둔화로 올해에는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5년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지난해 초부터 경기과열을 우려한 연준리의 시의적절한 금융긴축정책으로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하여 지난 2/4분기의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였으며 상반기 전체로는 2.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미국 경기의 연착륙은 재고 증가에 따른 생산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3/4분기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4.2%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빠른 회복세는 수출증가와 주택경기의 활성화에 기인한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경기가 완전한 회복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연준리의 평가와 이에 따른 금융완화정책에 따라 하반기에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금년 전체로는 3.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932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국면에 빠져 있는 일본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상반기 중에도 실업증가, 금융기관의 연쇄도산과 예상을 뛰어넘는 엔화의 초강세로 0.4%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엔화의 약세 반전과 증시회복, 소득세감면, 규제완화 등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금년 전체로는 0.8%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EU 경제는 금년 상반기중 독일 마르크화의 강세에 따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핵심경제권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하반기 EU 경제는 수출증가에 따라 각국의 산업활동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어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다소 높아질 예상이며 금년 전체로는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의 수출은 마르크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지출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 연방은행은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자 주요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이는 마르크화가 약세로 반전되는 데 기여하였다.

ASEAN 경제는 싱가포르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필리핀 경제가 두자리수의 물가상승 위협에 처해 있기는 하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경제의 호조에 따라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엔화강세 등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와 소득증가에 의한 소비수요의 증가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년 아세안 경제의 성장률은 지난해보다는 낮겠으나 7.1%의 고성장세가 기

대된다.

국제유가의 약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던 중동경제는 금년 2/4분기중의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유가평균이 유지됨에 따라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여 금년에 4.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중남미 경제는 지난해 12월의 금융위기에 따라 사상 최악의 경기후퇴국면에 빠져 있는 멕시코 경제가 9월 이후 회복되고 있어 하반기 들어서며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주요 국별로는 칠레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상반기중 -10.5%의 성장감퇴를 보였던 멕시코 경제는 금년에 -4~-5%의 성장감퇴가 예상된다.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를 실시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경제는 멕시코 금융위기의 여파와 실업증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출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려온 브라질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지난해의 941%에서 금년에는 30%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성장률은 지난해의 10%에서 4%대로 둔화될 예정이다. 결국 중남미 경제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융긴축정책, 수입자유화 확대 이후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제조업 생산감소 등으로 올해 성장률은 작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5% 선에 머물 예정이다.

중국 경제는 금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의 11.8%보다 낮은 10.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금년 전체로는 10.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두 자리수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둔화되고 있으며 실질소비지출증가율은 10%대를 상회하고 있다. 1992~1994년중 통제가 불가능하였던 고정자산 투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실질투자지출은 금년에 지난해의 절반수준인 8%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7월말까지 중국의 무역수지흑자는 144억달러에 달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1993년말의 212억달러에서 626억달러로 급증하였다. 한편 명목임금은 1993년~1995년중 연평균 30%씩 증가하여 실질임금상승률이 8%에 달하고 있으며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동구 경제는 경제활성화 노력, 민간부문의 활성화, 서방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정적자, 산업생산 둔화와 고물가에 시달려온 러시아 경제는 금년 8월에 물가상승률이 4.6%로 둔화되고 루블화와 산업생산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윤이 축소되고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여전히 높은 물가수준과 함께 정정 불안이 예상되고 있어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표 1) 세계 경제의 장기성장 전망

(단위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세 계	2.7	3.3	3.6	3.8	3.7	3.6
선진국	2.6	2.6	2.7	2.8	2.8	2.7
미국	3.0	2.6	2.3	2.4	2.7	2.6
일본	0.8	2.6	3.1	4.3	3.8	3.3
EU	3.0	2.5	-	-	-	-
(독일)	2.5	2.6	2.9	2.8	2.7	2.7
개도국	5.1	5.9	6.5	6.5	6.5	6.3
아시아	8.0	7.7	7.6	7.5	7.5	7.5
중국	10.5	9.7	9.5	9.3	9.1	9.1
중남미	1.5	4.0	5.1	5.6	5.4	4.8
중동	4.0	5.6	5.9	5.7	5.7	5.3
아프리카	3.2	4.6	5.0	4.9	4.9	4.6
체제전환국	-3.8	3.8	6.4	5.6	5.4	4.0

자료 : WEF, World Economic Outlook, 1995, 11.

(2)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

금년에 성장이 둔화되었던 세계 경제는 내년 이후 회복세가 가속화되어 1998년까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낮은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나 금년보다는 둔화된 2.6%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 생산성 향상과 실질임금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관계로 인플레이션 우려 없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부의 증세정책과 기업투자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금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는 내년에 2.6%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소비자물가의 하락과 소득세 인하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기업의 구조재편에 따른 실업확대로 회복세가 아직은 완만한 편이며 기업의 설비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이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할 예정이다.

EU 경제는 내년에 2.5%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EU 경제는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세 지속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각국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조치와 안정적인 물가수준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되살아나고 있으나 각국이 안고 있는 재정적자문제가 경제성장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별로는 영국이 2.7%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독일은 올해보다 높은 2.6%의 성장률이 기대된다. 프랑스 경제는 금년보다 둔화된 2.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필란드와 스웨덴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도 ASEAN 경제는 올해보다 둔화된 7%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며, 물가상승의 역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에 관건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국별로는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 태국이 각각 8.0%, 8.5%, 8.0%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필리핀과 베트남은 5.5%와 9.0%로 성장률이 높아질 예상이며 인도네시아는 금년과 같은 7.1%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중동 경제는 내년에 5.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수지적자 문제에 처해 있는 중남미 경제는 정치안정과 수출증가 및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 역내경제통합의 진전에 의한 교역활성화 등에 따라 90년대 들어서 가장 높은 4.0%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경제는 수출, 정부지출과 외국인투자 증가 및 국영기업 민영화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국내수요는 당분간 둔화될 예정이다. 브라질 경제는 자국화폐의 평가절하 이후 물가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환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갈 전망이며 재정적자의 감축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향후 중남미 경제는 멕시코의 경기후퇴가 중남미 정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아르헨티나의 금융, 통화정책의 향방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둔화된 9.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연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 불확실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주요 환율 전망

금년 세계 경제의 초미의 관심사는 달러화의 변동이었다. 엔/달러, 엔/마르크화의 환율은 예측불허의 움직임을 보여 왔다. 약세를 거듭하던 달러화는 금년 여름 이후 반등세로 돌아선 후 최근에는 100~105엔 사

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금년 들어서 4월까지 급락하였던 달러화 가치는 일본과 독일의 금리 인하, 미·일 통상마찰의 원만한 해결로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그동안 클린턴 행정부는 일본에 대한 통상압력수단으로 달러화의 하락을 방치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또한 일본 국내의 엔화자금 수요확대와 미국의 금리인하, 그리고 이에 편승한 투기적 외환거래 등이 달러화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반면 일본 정부는 정치적인 협상력의 약화와 지나칠 정도의 신중성으로 경제활성화와 엔화약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독일 정부도 독일연방은행의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에 따라 마르크화의 강세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약화는 국제환율변동에 있어서 대전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경기부양책 발표와 일본과 독일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미·일·독간의 금리격차는 지난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이와 함께 과거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각국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이 지난 8월에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에 따라 달러화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였으며 과거에 논의된 바 있는 목표 환율대(target zone)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년 초 100엔과 1.55마르크에서 하락을 거듭하여 지난 4월에는 80엔과 1.35마르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엔/달러, 마르크/달러 환율은 미국, 일본, 독일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반등세로 돌아서 10월 말 현재 102엔과 1.41마르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달러화가 100엔대로 올라서기는 하였으나 달러화의 장기적인 하락세를 반전시킬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100~105엔 대를 유지하고 있는 엔/달러의 연말 환율은 일본의 경기부진 및 미국 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국제 금리·환율·유가 전망(연율)

(단위 : %, 달러/배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단기금리〉						
미 국	5.9	5.5	5.3	5.7	5.8	6.0
일 본	1.2	0.7	1.8	4.2	5.0	5.3
독 일	4.5	4.5	6.0	6.2	6.2	6.1
환율 엔/달러	100	108	113	110	109	108
마르크/달러	1.50	1.38	1.70	1.68	1.67	1.66
유가 두바이	17.4	18.2	-	-	-	-

자료 : WEFA

주 : 1) 환율은 기말기준임. 1996년의 마르크/달러 환율은 OECD의 전망치임.

2) 단기금리는 미국은 3개월 CD, 일본은 3개월 환매채, 독일은 3개월 Fibor 기준임.

한편 내년의 달러환율은 105~110엔 대 사이에서 움직일 예상이다. 이는 일본 경제가 내년부터는 성장국면에 접어들 것이나 미국 경기는 금년에 비해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1.549마르크까지 상승하였던 마르크/달러 환율은 독일 경제의 성장세 지속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어 10월말에는 1.42마르크로 3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마르크화의 강세는 내년도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독일 경기의 회복세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위한 독일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및 미국의 금리인하 등으로 투자자금이 유럽의 금융자산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 단일통화에 대한 논의가 마르크화의 강세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르크/달러 환율은 내년 초까지 1.40마르크를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중반에는 1.35마르크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 경기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리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단기간 내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대폭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세계 최대의 채무국인 점을 감안할 때 달러화가치의 강세가 장기간 유지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달러화는 당분간 약세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3. 세계 무역 전망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세계교역규모는 금년 상반기중 18%의 성장세를 보인 후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15%의 신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금년 상반기중 국제교역이 호조를 보인 것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도 순조로왔으며 동유럽 및 구소련 지역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수입은 금년 상반기중 17%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금년 상반기중 17.4%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일본의 수입도 상반기중 경기불황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엔고에 따른 수입유발효과로 2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금년 전체로는 14.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수입이 전년 대비 14.5% 증가하였던 EU도 금년 상반기중 수입이 20%대의 신장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 전체로는 17.9%의 증가율을 기록할 예정이다.

개도국의 수입은 지난해의 17.2%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20%가 증가한 것으로 추

정된다. 중국과 ASEAN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라 자본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반기중 각각 14%와 18.5%에 이르는 높은 수입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러시아와 동구도 자본재 및 소비재 수요의 증가, 외국인 투자의 증가 등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각각 40%와 33.5%의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남미는 최근 수입자유화를 확대 실시한 브라질과 칠레 등의 수입확대에 힘입어 올 상반기중에 12%의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동국가들의 수입도 유가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세계 무역 전망

	(단위 : %)		
	1994	1995	1996
세 계	14.6	8.7	6.2
선진국	13.4	16.6	2.3
미국	14.3	14.3	5.1
일본	9.2	14.4	14.0
EU	14.5	17.9	1.2
개도국	17.2	14.5	11.4

자료 : DOT 및 WEFA

주 : 수입금액 기준임.

내년의 세계 교역은 금년의 급성장세에 대한 반작용과 달러화의 강세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예년수준인 6~7%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신장세는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둔화되겠으나 개도국 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일본 경기도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의 선진국 수입은 2.3%의 신장률이 예상된다. 미국은 가계소비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둔화되면서 내년에는 수입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5.1%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EU의 수입증가율도 내년에는 1.2%로 둔화될 전망이다. 일본은 금년 하반기 이후 내수회복과 미국의 대일 시장개방 압

력, 엔고에 따른 해외 원부자재조달 증가 등으로 내년에 14%의 큰 폭의 수입증가가 기대된다. 한편 개도국의 수입은 내년도도 11.4%로 여전히 높은 신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4. 국내 산업별 수출 전망

지난 10월말 1,000억달러를 돌파한 우리의 수출은 금년 전체로는 1,2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도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높은 신장률에 힘입어 2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1,500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중국, 대만, 홍콩을 포함한 중화 경제권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동시장이 미국을 제치고 제1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표 4)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

	1994	1995			1996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52.9(17.7)	40.1(70.8)	43.8(50.0)	83.9(58.6)	99.4(18.5)
조선	49.4(32.6)	21.4(-5.7)	31.4(17.7)	52.8(6.9)	61.2(15.9)
가전	71.1(13.7)	36.4(9.1)	43.1(14.3)	79.5(11.8)	89.3(12.3)
산업용전자	54.6(10.8)	32.2(30.7)	37.2(24.4)	69.4(27.1)	83.6(20.4)
전자부품	178.3(48.0)	117.7(52.7)	147.7(45.7)	265.1(48.7)	349.9(32.0)
일반기계	42.0(37.6)	26.0(43.9)	43.1(80.3)	69.1(64.5)	101.2(46.5)
철강	55.9(-15.5)	39.5(48.9)	37.3(27.3)	76.8(37.4)	82.6(7.5)
석유화학	38.1(32.4)	29.5(89.4)	28.5(26.7)	58.0(52.2)	72.9(25.7)
섬유	172.7(8.8)	92.1(12.2)	96.0(6.2)	188.1(8.9)	198.1(5.3)
신발	17.8(-22.9)	7.8(-16.9)	7.0(-11.8)	14.8(-16.9)	13.5(-8.5)
전체수출	960.1(16.8)	583.3(33.4)	668.7(28.0)	1,258(31.0)	1,511(20.1)

주 : 전년 동기비 증가율임.

1993년말 이후 건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은 금년 들어 더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33.4%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율이 28%로 둔화될 것

이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관기준으로 본 수출은 금년에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1,258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우리의 수출은 두자리수의 신장을 계속 하면서 국내경기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년중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품목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들 수 있으며 수출규모가 200억달러에 접근할 전망이다. 후발 개도국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일반기계의 수출과 자동차 수출이 큰 폭의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제품과 철강의 수출도 예상을 상회하는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공업 제품의 수출실적은 후발 개도국의 수출신장에 따른 상대적인 영향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내년의 수출환경과 관련하여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나 엔고효력이 금년 하반기 이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원화절상도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선진국 시장에 주로 의존하였던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고 내년도도 미국과 일본, 아시아 개도국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도 우리나라 수출은 금년보다 20%가 증가한 1,511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주력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금년에 21.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년에는 18.0% 정도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대일본 수출증가율은 내년에는 20% 정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대 EU 수출은 프랑스, 핀란드, 스페인을 중심으로 금년보다 낮은 신장세가 기대되며, 개도국 수출도 신장세가 둔화되었으나 두자리수의 증가율이 유지될 전망이다.

신흥시장중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수출이 70% 가량 증가하고 대대만 수출이 42%, 대말레이시아 수출이 40.6%, 대중국 수출이 39.8% 증가하여 전체로는 20%대의 고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한편 수출신장률의 기여도 측면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등의 순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화경제권이 수출기여도 측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내년도 우리의 수출은 수출선다변화에 따라 선진국에 대해서는 증가율이 둔화될 예상이나 개도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폭의 신장세가 기대된다. 지역별, 품목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한국상품에 대한 저가 고품질의 이미지로 평가되면서 전자제품과 정밀기계,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7월의 아세안 가입과 우리와의 수교 이후 신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베트남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30%대의 신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말레이시아 수출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플랜트 수입의 증가로 40%대의 신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중남미 수출 역시 콜롬비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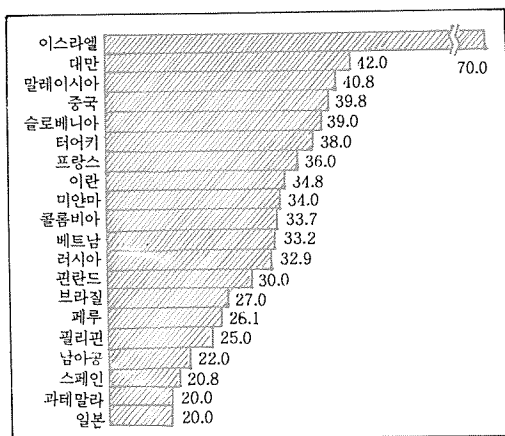
페루를 중심으로 큰 폭의 신장세가 기대되면서 증가할 전망이다. 대이란 및 러시아 수출신장세도 3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5. 타이어산업 전망

금년에도 두자리수의 생산과 수출증가율이 기대되는 국내 타이어산업은 내년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겠으나 내수신장률이 둔화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지속적인 설비확충에 따라 국내 타이어산업의 생산은 전년대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타이어 전제품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건설용, 산업용 및 농업기계용 타이어의 생산증가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내수에서는 소형트럭용 타이어를 제외하고는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타이어산업의 수출은 유럽시장의 적극적인 개척과 엔화강세에 따른 대일 수출의 증가로 신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타이어산업의 수출시장다변화전략에 따라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저유가에 따른 경기침체에 따라 대중동 수출이 부진하고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감퇴를 나타내고 있는 멕시코에 대한 수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수출신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물량이 적기는 하나 건설용, 산업용 및 농업기계용 타이어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그림 1) 주요 국가별 수출증가율 전망

이에 따라 금년도 국내 타이어의 수출은 수량기준으로 전년대비 12.5%가 증가한 3,380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이러한 수출신장세는 지속되어 금년보다 12% 증가한 3,785만개의 자동차용 타이어 수출이 예상된다.

한편 세계 타이어시장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신규 설비투자나 기존설비의 확장투자와 선진국 타이어시장의 성숙화에 따른 선진 타이어업체의 수출전략 강화에 따라 새로운 경쟁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국내 수요 역시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신장세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국내업체는 수출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신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선진국 신차 수요의 둔화에 따라 교체용 타이어의 수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평가 및 시사점

금년중 세계 경기의 회복세는 예상보다 둔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OECD국가들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되었으며, 중남미 국가들은 멕시코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세는 지속되었으며 동유럽 국가들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한편 금년 하반기 이후 일본, 중남미의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내년의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경기회복에 따른 해외수요의 증대와 각국의 무역자유화조치로 수출여건이 호전될 예상이나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과거 개도국

으로서 받던 각종 혜택이 점차 소멸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은 수퍼 301조를 이용하여 우리의 시장개방이 일정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EU도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대EU 주력 수출상품인 전자, 자동차, 신발, 섬유류 등에 적용해 오던 일반 특혜관세(GSP)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예상되고 있어 선진국시장으로의 수출이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수출시장다변화전략의 일환으로 개척해 온 개도국시장에서도 이미 미국이 17개 개도국을 거대신흥시장(big emerging markets)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수출증대전략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어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수출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어서 우리 기업은 새로운 수출전략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국내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정부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을 운용할 전망이고, 외국인 투자완화에 따른 외화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원화의 절상기조가 지속될 전망에 따라 수출경쟁력에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기업은 끊임없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통한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틈새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한편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생산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해외 직접투자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